

5월의 문화인물 보조국사 기념사업 송광사 "다채롭게"



송광사가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보조국사 지눌스님 기념사업'을 전개한다. 송광사는 오는 19일 입재하는 '제791회 보조국사 종재'를 시작으로, 19일~5월 31일까지 송광사 박물관에서 '보조국사 지눌스님 유물유적 특별전', 5월 13일 '학술세미나', 5월 18일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5월 19일~20일 '선재현 문화순례'를 실시한다.

19일부터 열리는 보조국사 유물유적 특별전에는 보조국사 원불 국보 제42호 '목조삼존불감'이 특별 전시된다. 이 삼존불감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수수리중에 있으며, 전시를 통해 삼존불감의 역사적 미술적 개요와 보존수리의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80여점의 특별전 도록도 발간한다.

이은자 기자



최원수 간송미술관 학예실장이 석굴암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석굴암으로 초대

EBS 18일, 최원수 씨 강의

책에서 접할 수 없는 석굴암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접하고 싶다면 18일 밤 8시30분에 방송되는 EBS-TV '최원수의 우리미술 바로보기, 이! 석굴암'을 눈여겨 보자.

최실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석굴암의 주존을 석가모니불로 선택한 이유, 석가세존이 상징한다는 영취산의 유래, 중국 영취산 자연석굴과 트윈산 석굴암 인공석굴의 비교분석 내용 등을 영상자료와 함께 소개해 준다. 또 석굴암이 한국 불교 건축미술에 끼친 영향도 곁들여 설명한다. 이외에도 이번 프로에서는 내실과 외실의 2실 구조로 돼 있는 석굴암의 외실을 지키는 호법신장 가운데 사바세계의 주인인 법천왕과 도리천의 천왕인 제석천의 위치가 바뀐 이유가 1913년 중수 때 공사를 맡았던 사람들에게 의해 빛이진 실수라는 에피소드도 들려주는 등 다방면에서 석굴암을 재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불교연극 三色三題

불기2545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3편의 불교연극이 관객을 찾아간다. 이은택 작의 연극 '오구'를 불교적으로 재구성한 '오구대왕놀이', 불

교개혁가 독립운동가로서의 만해스님의 삶과 사상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낸 '깍다거-연꽃의 노래', 현대인의 방황과 사랑을 미항사를 배경으로 구성해 낸 '나비는 천년을 꿈꾼다' 등이다.

종교극 '오구대왕놀이'

23·30일 삼광사

이색적인 종교극 '오구대왕놀이'가 23일과 30일 두차례 부산 천태종 삼광사 지관전에서 공연된다.

'오구대왕놀이'는 90년 연희단 거리패에 의해 초연된 이후 9년동안 계속 공연되어 온 회화의 연극 '오구'를 시왕전의 세계를 빌려 불교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연극은 평소 연극이나 문화적인 공연을 통한 포교와 감화에 관심을 두고 있던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죽은 지아비의 극

락왕생을 비는 오구굿판을 밟아 다 갑자기 '나 갑란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숨을 거둔 황씨 할머니가 저승세계에서 사자의 피를 심판하는 열라대왕 등 시왕(十王)을 만나 갖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줄거리다. 극중 시왕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의 전통악기 연주와 열두발 상모놀이 등 다양한 공연양식을 선보이며, 극중 동자승과 각설이로 출연하는 배우 정동숙이 시왕 각



◇'오구대왕놀이'는 연출가 이은택 씨가 자신의 연극 '오구'를 시왕전의 세계를 빌려 불교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각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연출가 이씨는 "불교적 생사관을 철저히 이해하고 삶과 죽음의 연속성 속에서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이연극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031)808-7111

'깍다거-연꽃의 노래'

5월 8~10일 인천예술회관

극단 '향아리'가 만해스님의 삶과 사상을 현대적으로 그린 연극 '깍다거-연꽃의 노래'는 현실의 만해스님(有)과 상상속의 만해스님(無)이 펼치는 대담하고 극적 긴장감을 더하는 작품이다. 만해스님이 입적하기 전날, 또 다른 만해 무(無)가 만해스님을 찾아오며 극이 시작된다. 만해스님의 또다른 자아의 상징인 만해 무를 따라 또다른 두명의 등장인물 마와 여인도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만해스님이 갖고 있는 세상

에 대한 집착의 화신들이다.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으며 길을 재촉하는 만해 무. 이를 수긍하지 않는 만해스님. 결국 만해 무는 69년의 생을 살아 온 만해스님의 과거를 보여 주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해 깨달음의 궁극적 경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지난 95년 초연된 작품으로 최현목작의 희곡에 이대상씨가 연출을 맡았다. 시간간의 초월과 혼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조명과 상징 세트를 사용

하고, 또한 자칫 평범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관객들에게 부담없이 전달하기 위해 음악, 합창, 마임 등 현대적이고



◇'깍다거'는 현실속의 만해 유(有)와 또다른 자아의 상징인 만해 무(無)가 만나면서 극이 전개된다.

역동적인 요소를 곳곳에 배치했다. 5월 8일~1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선보인다.(032)361-2311

'나비는 천년을 꿈꾼다'

5월 6일까지 대학로 소극장

빠르고, 편리하고,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모든 고뇌의 근원은 탐성에 있으며, 버려야만 참으로 얻을 수 있다는 불교적 메시지를 담은 연극 '나비는 천년을 꿈꾼다'는 지난 달 말 서울 대학로에 막을 올린 후 오는 5월 6일까지 공연된다.

극단 페아르프의 작품인 이 연극은 자살을 하기 위해 산사를 찾아가 한 사내가 빠지는 비극적 사랑을 불교의 윤회 사상

을 바탕으로 다루었다. 서민들의 애환과 한국적 정서를 감칠맛 나는 대사로 그려낸 바 있는 작가 김태수 특유의 탁월한 언어적 감각으로 사건을 쫓기보다는 번뇌와 해탈에 관한 철학적 성찰에 더 중점을 두었다.

연출가 우현주씨는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연극에 색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향냄새, 객석에 깔린 낙엽 등 다양한 이미지 소품과 장치를 사



◇'나비는...'은 다양한 소품과 장치를 통해 색다른 연극적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용했다. 극중 배경무대로 등장하는 땅따먹기를 미항사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02)3673-0258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누구의 신호에 의한 것일까? 알다시피 피어난 꽃들로 산과 들이 온통 환하다. 역시 '봄'은 '보라'고 봄인가 보다. 봄의 진수는 '보'는 데 있고, 그 대상은 꽃들일 수밖에 없다. 삭막한 겨울 내내 얼마나 기다려온 생명의 약동인가. 자연에 남치는 봄의 기운은 우리 내면에서도 정신의 꽃을 피워보라고 재촉하는 것 같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은 자연이지만, 정신의 세계에선 꽃이 피면 바로 봄이다. 선사(禪師)들은 '봄 봄(四時長春)'이라 했는데, 우리의 내면은 지금 어느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며칠 전 인동을 여행했다. 봉정사 영산암과 하회마을에 들른 뒤, 낙동강이 꽃에(花山)를 휘감아 도는 언덕에 자리한 병산서원에서 잤다. '저녁에 바라보는 경치가 좋은 누각'이라는 뜻을 가진 만대루(晩對樓)에 올라가 앉으니, 앞에 병풍 같이 둘러친 병산(屏山) 위로 달이 등실 떠올랐다. 이름 그대로 절경이었다. 만대루 뒤편 서원의 뜰에는 매화나무 두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흰 매화 꽃잎에 달빛이 부서져, 문자 그대로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의 정경이 펼쳐졌다. 소금을 확 뿌려놓은 듯 희뿌연 마당에 봄바람이 실랑 불어오니 꽃 그림자가 일렁이면 서 매화 향기가 옷 속으로 배어드는 듯했다. 서원에서 하룻밤을 묵으니, 유학자들도 볼자 못지 않게 연꽃을 좋아했다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주렴계(周濂溪, 1017-1073)의 '연꽃을 사랑하는 이야기(愛蓮說)'가 생각났다.

주렴계의 '애련설'

'속이 통했다' '겉이 꽃꽂하다' 보현의 힘찬 실천력

물 속에서 나는 꽃, 땅 위에서 피는 꽃, 세상에는 사랑 할만한 꽃이 너무도 많다. 진나라 도연명은 유목 국화를 사랑했고, 당나라 이례 세상 사람들은 유행처럼 모란을 좋아했다. 그런데 나는, 휴양 속에서 꽃을 피우며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을 사랑한다. 연꽃은 맑은 잔물결에 씻기어도 요염하지 않고, 속은 비어 위아래가 통한 채 겉은 대쪽 같이 꽃꽂하다. 어지러이 엉글지는 법도 없고, 번잡하게 가지를 치는 법도 없다. 그 향기 멀수록 더욱 맑고, 연해 보아도 그 모습 들 위에 우뚝 깨닫게 서 있다. 위엄 있는 군자를 우러러보듯 멀리서 볼 수는 있어도, 가까이 접근하여 희롱할 수는 없다...

주자(朱子)로부터 신유학의 개조로 평가받은 주렴계가 연꽃을 유목 사랑했다는 말은 신유학이 불교의 강한 영향 아래 태어났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가 본 연꽃의 핵심적인 면은 '속은 비어 위아래가 통한 채 겉은 대쪽 같이 꽃꽂한(中通外直)' 대몽의 모습이다. '속이 통했다'는 것은 마음이 허공처럼 텅텅이어서 문수의 빛나는 지혜를 갖추었다는 뜻이다. '겉이 꽃꽂하다'는 것은 진리에 중심을 잡아 보현의 힘찬 실천력을 갖추었다는 말이다. 정도에 화성한 부처님들이 저마다 지리잡은 연화대는 빛과 힘이 넘치는 꽃자리이다.

불문학평론가

새천년의 발원

- 손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향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연등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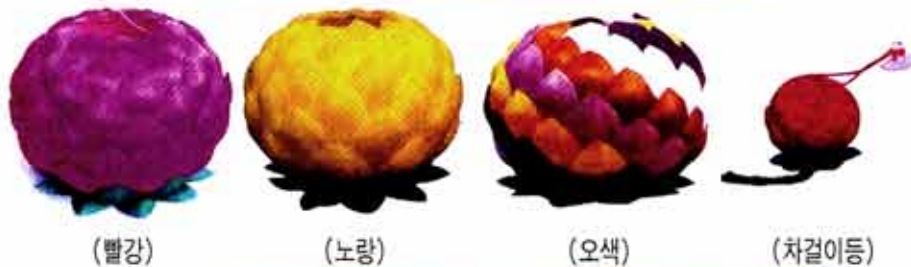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갈이등)

팔모조림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만월등



(육각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안국원 제조팩터(떡이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창등록 디자인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